

# 문헌정보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 현황과 요구 분석\*

##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 Present Situation and Need Assessment

장혜란 (Hye-Rhan Chang) \*\*

### 목차

- |               |                       |
|---------------|-----------------------|
| 1. 서론         | 3. 1 응답자의 개인적, 직업적 특성 |
| 2. 연구 방법과 내용  | 3. 2 계속교육 현황 분석       |
| 2. 1 연구 방법    | 3. 3 계속교육 요구 분석       |
| 2. 2 조사 내용    | 4. 결론                 |
| 3. 데이터 분석과 논의 | <부 록>                 |

### 초록

체계적인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계속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개인회원파일로부터 25% 계통표집을 하여 292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80% 회수되었다. 문헌정보전문직들의 계속교육 참여 요구는 대단히 높지만(90.5%) 참여 현황은 저조하여 전체의 약 50% 정도만이 지난 3년 동안 교육경험이 있고, 개별적인 학습도 취약하며 개인차가 크다. 소속기관에서는 계속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나(67%) 구체적인 장려책은 충분치 못해 시간과 비용보조를 제공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다. 현직자들이 요구하는 교육유형은 전문주제별이나(31.1%) 업무별(25.5%) 단기간과정이며, CD-ROM과 같은 뉴미디어(31.6%)나 온라인 교육(22.9%) 방식도 선호도가 높다. 응답자들은 계속교육 주관기구로는 협/학회, 대학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요구주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던 16가지 주제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한 주제는 5가지이며, 7가지 주제에서 유의한 관중별 차이가 판명되었다.

### ABSTRACT

To investigate the present states and analyze the need of continuing education, a survey was done to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Based on the personal membership file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292 members were selected using 25% systematic sampling method.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them and 80% returned. Of the total respondents, 90% want to participate continuing education, however only 50% have a formal continuing education experience during last 3 years. Informal educational efforts are also weak and show much individual differences. 67% of the libraries encourage continuing education but only 25% of the respondents were provided with time and money for participation. The most favored mode of the continuing education is one week course specialized in particular topic(31.1%) or area(25.5%). New methods, such as CD-ROM, online etc. were also preferred. Respondents regard professional association, society, and the library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of university as desirable leading organization for continuing education. Among the 16 possible topics to be educated, respondents showed substantially higher interest(more than 50%) in 5 topics, and there were significant need differences in 7 topics among groups divided by library type.

\* 본 연구는 1996년도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접수일자 1996년 12월 23일

## 1. 서론

최근 정보환경이 변화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제공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문헌정보전문직(이하 정보전문직)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문헌정보활동의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전문직과 그 교육은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중요성을 잃게 되며 점차 사회 안에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80년대 이후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중심과제가 되어 왔으며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학의 정규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다.

문헌정보학의 학부과정은 정보전문직에 입문하기 위한 기초적 지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다양한 현장요구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모두 망라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학부제나 복수전공제 등 대학교육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최소전공이 수학점이 현행 전공이수학점의 약 2/3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현상에서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전문직은 그 활동의 성격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정규교육을 강화하고 개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정규교육과 현장의 갭을 메꾸기 위한 계속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직업에 임하면서 전문화가 시작되므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계속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일찌기 정보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이 꾸준히 발전해 온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계속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각 도서관협회와 위원회 그리고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등의 차원에서 계속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88년에는 미국도서관협회가 계속교육의 질적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ALA, 1988).

계속교육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종별(Burgin 1992, Fisher and Matarazzo 1993, Hegg 1985, Lewin et al. 1991), 업무별(Boydston 1992, Conway 1993, Laughlin and Nissen 1990)로 연구될뿐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도 연구되고 있다(Albritton 1990, Smith, and Burgin Smith 1991, Stephens 1992). 한편 계속교육에 대한 원활한 정보유통을 위하여 CLENE (Continuing Library Education Network and Exchange)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에는 "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고정 칼럼이 있어 계속교육에 대한 의견교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드물다. 소수의 연구자들이 정보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 중

요성, 현황 등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정태숙 1978, 김병주 1985, 이진영 1990, 조호일 1992), 구체적인 데이터에 입각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유일하게 41개 국공립대학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표집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김현식 등 1994).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체계적인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문헌정보 분야의 현직자를 대상으로 계속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속교육 요구를 조사하여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집단과 필요주제 및 유형 등을 식별함으로써 계속교육의 기획과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계속교육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명확히 목표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내용과 유형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교육 프로그램이 실패하게 되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물론 참가자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성공적인 계속교육의 수립과 활성화는 물론 장차 정보전문직 개인들의 직업적 성장과 문헌정보활동 전반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황과 요구를 연구하기 위하여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 분야 현직자들을 망라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한국도서관협회 개인회원파일을 표본의 틀로 사용하였다. 1996년 11월 현재 한국도서관협회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강사, 퇴직자, 무직자 등을 제외하고 전체의 25%를 표집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계통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292명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부하였다.

조사는 199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 발송 10일 후 미응답자를 대상으로 응답을 촉구하는 메모와 함께 2차로 설문을 발송하였다. 총 234부의 설문지 회수되었다(회수율 80%). 그 중 다수 문항에 답변이 누락되어 있어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13부를 제외한 총 22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직업적 개인적 변인과 계속교육 현황 및 요구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는 카이제곱법(Chi-square)을 사용하였다. 통계 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패키지는 SPSS / PC<sup>+</sup> 를 사용하였다.

## 2. 연구 방법과 내용

### 2.1 연구 방법

우리나라 문헌정보전문직들의 계속교육

### 2.2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직업생활에 관한 사항, 계속교육 경험 현황 및 견해에 관한 사항, 계속교육 요구주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적 사항 등 넷으로 구분되어 있으며(부록 참조), 설문은 계속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자료들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직업생활에 대한 사항은 6개 문항으로 문헌정보 분야 근무년 수, 재직기관의 소재지, 재직도서관의 유형, 현 직위, 현직위 근무년 수, 문헌정보학 교육이수 정도 등이다.

계속교육 경험 현황 및 견해에 관한 사항은 모두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최근 3년 이내에 받은 공식 계속교육에 대한 경험과 과정을 적도록 하였다. 또한 계속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고 보아 지난 1년 동안의 전문서적과 전문지 기사에 대한 독서 정도, 그리고 전문지의 정기적 브라우징 여부와 중수를 적도록 하였다. 계속교육 참여 의향에 관한 사항과 재직기관에서의 계속교육 장려여부, 장려책, 그리고 참여결정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계속교육은 여러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육유형과 선호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속교육을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현직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주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계속교육 필요예상 주제 중에서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었다. 필요예상 주제는, 현직자들이 정규교육에서 수강하지 못한 주제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1995년 현재 서울 소재 문헌정보학과 학부과정 설강 교과목 103종(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5)에 대하여 7개 대학 이상에서 공통으로 설강하고 있는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2개 대학 이상에서 설강하고 있는 과목을 취하여 9개의 주제를 식별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하고 있지않으나 외국에서는 교육하고 있는 주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의 문헌정보학 석사과정의 교과과정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미국에서 문헌정보학 교수진과 도서관 경영자들 두 집단의 견해를 조사해 우수학과의 순위를 부여한 보고서(White, 1993)를 참고하여, 두 집단에서 모두 상위 5위 안에 공통으로 속하는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7개 학교였다. 7개 학교의 최신 교과과정을 조사하여 그 중 4개 학교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설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학부 교과과정에는 없는 16개의 주제를 식별하였다.

셋째, 미국 정보전문직의 성공적인 21세기로의 전환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분석하여 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한 결과(Woodsworth and Lester, 1991)를 참고하여 12개의 주제를 식별하였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식별된 주제를 통합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우리사회에 적용가능한 16가지 주제를 계속교육 필요예상 주제로 결정하였다. 설문에는 또한 기타란을 두어 그 외

에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열거토록 하였다.

### 3. 데이터 분석과 논의

#### 3. 1 응답자들의 개인적, 직업적 특징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221명의 개인적, 직업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 경력, 재직기관의 지역과 유형, 직위와 직위 재직년 수, 문헌정보학 교육 등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 3. 1. 1 개인적 특성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가 <표 1>과 <표 2>에 나타나 있다. 221명 중 무

<표 1> 응답자의 성별 분포

구 분	명	%
남 자	110	49.8
여 자	110	49.8
무 응 답	1	0.4
계	221	100.0

<표 2>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구 분	명	%
20대	24	10.9
30대	106	48.0
40대	52	23.5
50대	30	13.6
60대 이상	6	2.7
무응답	3	1.4
계	221	100.0

응답자 1명을 제외하면 남·녀의 비율이 동일하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가장 많았고(48%), 그 다음이 40대(23.5%), 50대(13.6%), 20대(10.9%)의 순서로 되어 있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여 응답자들이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 1. 2 문헌정보 분야 경력

응답자들의 문헌정보 분야에 종사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5년씩 간격을 두어 조사하였는데, 11-15년 경력자가 가장 많아 31.7%를 차지하며 10년 이하의 경력자가 3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문헌정보 분야 경력

구 분	명	%
5년 이하	26	11.8
6 - 10년	48	21.7
11 - 15년	70	31.7
16 - 20년	44	19.9
21년 이상	31	14.0
무응답	2	0.9
계	221	100.0

##### 3. 1. 3 재직기관의 지역적 분포

응답자들의 지역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정보센터의 소재지를 조사하였다. 전국을 크게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여섯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4>를 보면

응답자들의 61.1%인 135명이 서울·경기 지방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역적으로 크게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소속기관의 지역적 분포

구 분	명	%
서울·경기	135	61.1
강원	7	3.2
충청	21	9.5
전라	16	7.2
경상	41	18.6
제주	1	0.4
계	221	100.0

### 3. 1. 4 재직기관의 유형

응답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유형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관종별 분포를 보면 대학도서관이 46.1%로 지배적이며, 그 다음이 전문/특수도서관(18.1%), 공공도서관(17.2%)의 순서로 되어있다.

〈표 5〉 재직기관의 유형

구 분	명	%
국립도서관	17	7.7
공공도서관	38	17.2
대학도서관	102	46.1
학교도서관	11	5.0
전문/특수도서관	40	18.1
기타	13	5.9
계	221	100.0

### 3. 1. 5 현 직위와 재직기간

현 직위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 〈표 6〉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들의 약 반 정도(46.1%)는 일반사서직이며 36.7%가 중간관리자인 과장/계장 급이다. 중간관리자 사서장 관장/부관장 등 관리자 층을 모두 합하면 전체의 45.3%로서 일반사서 전체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 기타(8.1%)는 사서직이 아닌 연구원이나 기능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6〉 현 직위별 분포

구 분	명	%
관장/부관장	9	4.1
사서장	10	4.5
과장/계장	81	36.7
일반사서	101	45.7
기타	18	8.1
무응답	2	0.9
계	221	100.0

〈표 7〉 현 직위 재직기간

구 분	명	%
2년 미만	36	16.3
2 - 4년	58	26.2
5 - 7년	53	24.0
8 - 10년	46	20.8
11년 이상	27	12.2
무응답	1	0.5
계	221	100.0

현 직위의 재직기간을 조사한 〈표 7〉을

살펴보면, 2-4년이 가장 많고(26.2%), 그 다음이 5-7년(24%), 8-10년(20.8%) 순이다.

5년을 기준으로 보면 5년 이상이 57%로 비교적 정제되어 있고 승진의 기회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1. 6 문헌정보학 교육 이수

응답자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살펴본 것이 <표 8>에 나타나 있다. 4년제 대학 학부과정을 수확한 사람이 가장 많고(37.1%), 그 다음이 대학원(23.5%), 사서교육원(19.5%), 전문대학(14.5%)의 순서로 나타나 있다. 5.4%에 해당하는 기타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연수과정 이수자와 4년제 대학 부전공자를 포함하고 있다.

<표 8> 문헌정보학 교육

구 분	명	%
대학원	52	23.5
4년제 대학	82	37.1
전문대학	32	14.5
사서교육원	43	19.5
기타	12	5.4
계	221	100.0

## 3. 2 계속교육 현황 분석

### 3. 2. 1 최근 3년 이내의 계속교육 경험

최근 3년 이내에 공식적인 계속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들 중의 49.3%가 계속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나머지 약 반 정도는 지난 3년동안 한번도 공식적인 계속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다.

<표 9> 계속교육 경험

구 분	명	%
교육경험 있다	109	49.3
교육경험 없다	107	48.4
무응답	5	2.3
계	221	100.0

계속교육 경험이 있는 109명에게 참여했던 과정 수와 명칭 그리고 교육 주관기관을 조사하였다. <표 10>을 보면 응답자의 57.8%가 1회 참여하였고, 2회 참여한 사람이 23.9%, 3회 이상 참여한 사람이 18.3%로 나타나 있다. 3회 이상(즉, 연평균 1회 이상) 계속교육 참여자는 전체 응답자(221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 10> 계속교육 참여 빈도

구 분	명	%
1회 참석	63	57.8
2회 참석	26	23.9
3회이상 참석	20	18.3
계	109	100.0

응답자들이 기록한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실무자과정과 전문교육과정 참석자가 가장 많았으며(45%), 그 다음이 각종 전산관련 교육(20%), 학·협회 주최 세미나(14%), 각종 인터넷관련 교육(9%)의 순

서로 되어 있다.

### 3. 2. 2 개별적 학습노력

전문직의 계속교육은 개별적인 학습을 통하여도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 계속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서적이거나 논문기사의 독서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브라우징 정도를 조사하였다. <표 11>은 지난 1년 동안의 문헌정보학 전문서적에 대한 독서를 조사한 것이다. 응답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1-3권 정도의 독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도 읽지 않은 사람이 11.3%, 7권 이상 읽는 사람이 13.6%로 개인차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문헌정보학 전문서적 독서

구 분	명	%
한권도 없음	25	11.3
1 - 3권	135	61.0
4 - 6권	30	13.6
7권 이상	30	13.6
무응답	1	0.5
계	221	100.0

지난 1년 동안 문헌정보학 전문지에 실린 기사의 독서를 조사한 결과가 <표 12>에 나타나 있다. 단행본과 달리 한 건도 읽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5건씩 간격을 두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슷한 수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현직자들의 계속교육에는 전문지가 더욱 지배적인 매체임을 알 수 있다.

정기적인 문헌정보학 전문지 브라우징 여부를 조사한 문항에서는 전체의 67.4%

<표12> 문헌정보학 논문기사 독서

구 분	명	%
1 - 5건	67	30.3
6 - 10건	59	26.7
11 - 15건	45	20.4
16건 이상	49	22.2
무응답	1	0.4
계	221	100.0

에 해당하는 149명이 “예”라고 답변하였다. 현직자들의 약 30% 정도는 정기적인 브라우징을 하고 있지 않다. 브라우징 하

<표 13> 국내 전문지 브라우징

구 분	명	%
1종	48	32.2
2종	48	32.2
3종	26	17.4
4종 이상	27	18.2
계	149	100.0

<표14> 외국 전문지 브라우징

구 분	명	%
0종	101	67.8
1종	17	11.4
2종	13	8.7
3종 이상	18	12.1
계	149	100.0



는 전문지를 국내잡지와 외국잡지로 나누어 중 수를 조사한 결과가 <표 13>과 <표 14>에 나타나 있다.

<표 13>을 보면 국내 전문지 브라우징 중 수에 대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149명에 대한 국내지 평균 브라우징 중 수는 2.7종으로 산출되었다. 반면에 외국지에 대하여는 149명 중 67.8%가 1종도 브라우징하지 않는다. 현직자들의 대부분이 국내 전문지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2. 3 소속기관의 계속교육 정책

전문직의 계속교육 이수는 일차적으로 각 개인에게 책임이 있으나 소속기관의 정책이나 관행 등은 직원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속기관의 계속교육을 장려하는가의 여부, 어떤 장려책이 제공되는가, 그리고 계속교육 참여 결정에 누가(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다. <표 15>는 소속기관의 계속교육 장려여부에 관한 응답결과이다. 67%에 해당하는 148명이 장려한다고 답변하였다. 나머지 31.2%가 재직하는 기관에서는 계속교육을 장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소속기관의 계속교육 장려여부

구 분	명	%
장려한다	148	67.0
장려하지 않는다	69	31.2
무응답	4	1.8
계	221	100.0

장려한다고 답변한 148명에 대하여 어떤 장려책이 제공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148명이 제시한 계속교육 장려책에 대한 사항이 <표 16>에 나타나 있다.

<표 16> 계속교육 장려책

구 분	명	%
교육시간만 허용	56	37.8
재정적보조만 제공	19	12.9
교육시간과 재정보조 제공	56	37.8
기타	17	11.5
계	148	100.0

교육시간을 위해 직장을 비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37.8%, 재정적 보조가 제공되는 경우 12.9%, 교육시간을 위해 직장을 비우는 것과 재정적 보조 모두 제공되는 경우 37.8%, 기타 11.5% 이다. 현직자들의 계속교육을 위하여는 시간과 비용이 모두 필요한데, 이 경우는 56명으로 전체 221명 중 약 25%만 해당된다. 기타에 속하는 17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중 절반 정도는 형식적으로 장려할뿐 구체적인 혜택이 없는 경우이며, 나머지 사례를 보면 강사초빙, 근무시간외 기관내 교육, 야간대학원 진학 허용, 파견근무, 휴직 허용 등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계속교육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요인)을 조사한 결과가 <표 17>에 나타나 있다. 직속상관이 38.9%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그 다음이 관장(17.6%), 정해진 교육순위(14%), 직원개인의 의견(12.7%) 등이다. 기타도

11.8%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 사항은 소속기관 최고책임자, 예산 혹은 인사담당 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속교육 참여에 개인의 선택보다는 직속상관, 관장, 최고책임자 등 경영자가 결정하는 현상에서는 경영자들이 계속교육을 경영업무의 하나로 인정하고 그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7〉 계속교육 참여 결정자

구 분	명	%
관장	39	17.6
직속상관	86	38.9
직원개인	28	12.7
교육순위	31	14.0
기타	26	11.8
무응답	11	5.0
계	221	100.0

### 3. 3 계속교육 요구 분석

#### 3. 3. 1 계속교육 참여 의사

문헌정보직을 위한 계속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가 〈표 18〉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의 90.5%가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현직자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알 수 있다.

〈표 18〉 계속교육 참여 의사

구 분	명	%
있다	200	90.5
없다	17	7.7
무응답	4	1.8
계	221	100.0

계속교육 참여 의사에 대하여 교육 목표집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전문직 경력, 소속 도서관종, 교육이수 정도, 현직위, 성별 등을 변인으로 하여 카이자승 분석을 한 것이 〈표 19〉에 나타나 있다.

〈표 19〉를 보면 현 직위를 제외한 4가지 변인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직 경력별로는 21년 이상 경력자들이 참여 의향이 제일 낮았으며 (67.7%), 도서관종별로는 학교도서관에

〈표 19〉 계속교육 참여 의사에 대한 집단별 차이 검증

변인	검증값		χ <sup>2</sup> 값	자유도	유의도
	있다(%)	없다(%)			
정보전문직 경력	198(92.1)	17(7.9)	32.03	4	.000**
소속도서관종	200(92.2)	17(7.8)	11.91	5	.03*
교육이수 정도	200(92.2)	17(7.8)	9.11	4	.05*
현 직위	200(93.0)	15(7.0)	7.16	4	.12
성 별	199(92.1)	17(7.9)	8.95	1	.002**

\* P < .05    \*\* P < .01

〈표 20〉 바람직한 계속교육 유형

구 분	명	%
주제별 워크샵 (3일 정도)	25	9.3
특정업무별 단기교육 (1주 정도)	68	25.5
전분야 연수과정 (3주 정도)	49	18.4
전문주제별 단기교육 (1주 정도)	83	31.1
대학원 과정의 시간제 등록	28	10.5
상위의 학위과정	14	5.2
계	267	100.0

서 가장 낮았다(81.8%). 현 직위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백분율로 보면 관리자가 아닌 일반사서의 경우 참여 의사가 가장 높았다(98%). 교육이수 정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참여 의사는 사서교육원 출신이 가장 낮고(83.7%), 4년제 대학 출신이 가장 높았다(96.8%). 성별에 관하여는 여성이(98.1%) 남성보다(86.2%) 높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 3. 3. 2 계속교육의 교육유형

계속교육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현직자들의 계속교육 요구가 어떤 형태로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는가를 조사한(복수선택 가능 문항) 결과가 〈표 20〉에 나타나 있다. 본 문항에서는 학습효과가 적은 일시적인 회의나 세미나 참석 등은 배제되었다.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교육은 전문 주제별 단기교육(31.1%)이며, 그 다음이 특정업무별 단기교육(25.5%)으로 응답자들은 문헌정보학 전반에 대한 교육보다

는 심도있는 전문주제나 업무별 교육을 선호한다. 대학원 과정의 시간제 등록도 전체의 10.5%나 차지하고 있다.

### 3. 3. 3 새로운 교육 방식

교육의 유형과 더불어 교육의 방식도 점차 다양해 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보다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해당 설문은 방송을 이용한 통신교육, 중앙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피교육자를 위한 순회과정, 뉴미디어, 온라인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복수선택 가능). 〈표 21〉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보면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CD-ROM과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이며(31.6%), 그 다음으로는 교수진이 순회하는 출장교육(29%), PC통신을 이용한 온라인교육(22.8%)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3. 4 계속교육 주관 기관

〈표 21〉 새로운 교육 유형

구 분	명	%
방송을 이용한 통신교육	41	13.3
CD-ROM과 같은 뉴미디어	97	31.6
PC통신을 이용한 온라인교육	70	22.8
교수진이 순회하는 출장교육	89	29.0
독학과정	10	3.3
계	307	100.0

체계적인 계속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계속교육을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표 2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도서관협회가 30.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문헌정보학관련 학회(23.1%), 대학의 문헌정보학과(21.2%), 도서관(19.9%)의 순서로 나타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계속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5개의 학회와 그 보다 훨씬 많은 전국적, 지역적 협(의)회가 있는데, 계속교육을 위한 협회나 학회의 역할에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협회의 활동이 성공적인 예로 프랑스의 ADBS(Association of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Professionals)를 들 수 있다. ADBS는 1995년 1년 동안에 125개의 계속교육 과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Menou, 1996) 협회 예산의 35%를 계속교육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문헌정보

〈표 22〉 계속교육 주관 기관

구 분	명	%
문헌정보학관련학회	51	23.1
도서관협회	68	30.8
도서관(예, 국립중앙도서관 등)	44	19.9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47	21.2
기타	9	4.1
무응답	2	0.9
계	221	100.0

학과협회(AALISE) 가입학과들의 계속 교육활동 기록을 보면, 1992년 1년 동안 153개의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Thompson, 1992, 45).

### 3. 3. 5 계속교육 요구 주제

체계적인 계속교육을 위하여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집단을 식별하고 피교육자들이 원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여 요구에 맞는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조사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설정된 16가지 주제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가 <표 23>에 나타나 있다. 요구자 수(%)는 전체 221명 중 필

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이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선택한 주제는 5가지이며, 그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180명, 81.8%) 선택한 주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정보원과 탐색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은 서지정보를 위한 DBMS의 이용(69.2%), 정보네트워크 기술(68.3%), 도서관서비스의 측정과 평가(53.4%), 정보시스템 분석과 설계(52.5%)로 나타났다. 분야별 혹은 이용자별 자료원과 서비스에 관한 요구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있다.

기타란에 주제를 적어 응답한 사람은 총 31명 이었다. 이들이 나열한 주제는 문

<표 23> 주제별 계속교육 요구 정도

주 제	요구자 수(%)
정보시스템 분석과 설계	116(52.5)
서지정보를 위한 DBMS의 이용	153(69.2)
정보네트워크 기술	151(68.3)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정보원과 그 탐색	180(81.8)
문서자료의 조직과 관리	91(41.2)
지역사회 분석과 지역 특수서비스	78(35.3)
개인의 정보추구 및 정보이용행태	90(40.7)
정보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90(40.9)
도서관에서 필요한 통계분석법	93(42.1)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측정과 평가	118(53.4)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60(27.1)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자료와 서비스	68(30.8)
보건/생명과학 정보원과 서비스	33(14.9)
법률 정보자료와 서비스	53(24.0)
경영 정보자료와 서비스	59(26.7)
정부간행물	71(32.1)

화전반, 문화행사, 자료평가와 선택, 버티칼화일정리, 경영이론, 과학기술정보자료, 도서관봉사철학, SGML, 디지털도서관설계 등 다양하며 공통적인 요구주제를 식별하기는 어렵다. 교육요구 주제별 목표집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6가지 주제에 대한 요구가 응답자들의 소속 도서관종별

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표 24>를 보면 16가지 주제 중에서 7가지 주제에 대한 요구가 관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보시스템 분석과 설계는 관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P < .05$ ), 전문/특수도서관(66.7%)과 대학도서관에서(59.4%) 요구가 많다. 서지정보를

<표 24> 요구주제에 대한 관종별 차이 검증

주 제	요구	도 서 관 종(%)					F값	유의도
		국립	공공	대학	학교	전문/특수		
정보시스템 분석과 설계	있다	35.3	37.8	59.4	45.5	66.7	11.49	.04*
	없다	64.7	62.2	40.6	54.5	33.3		
서지정보를 위한 DBMS	있다	52.9	75.7	71.3	45.5	77.5	7.65	.17
	없다	47.1	24.3	28.7	54.5	22.5		
정보네트워크 기술	있다	47.1	59.5	78.4	27.3	75.0	19.46	.001***
	없다	52.9	40.5	21.6	72.7	25.0		
네트워크 정보원과 탐색	있다	70.6	86.5	87.3	54.5	80.0	10.98	.05*
	없다	29.4	13.5	12.7	45.5	20.0		
문서자료의 조직과 관리	있다	29.4	45.9	39.2	81.8	35.0	9.72	.08
	없다	70.6	54.1	60.8	18.2	65.0		
지역사회 분석과 특수서비스	있다	35.3	70.3	29.4	27.3	20.0	25.77	.001***
	없다	64.7	29.7	70.6	72.7	80.0		
정보추구 및 정보이용행태	있다	35.3	35.1	39.6	45.5	55.0	4.72	.45
	없다	64.7	64.9	60.4	54.5	45.0		
정보상품/서비스 개발/마케팅	있다	35.3	45.9	38.2	9.1	47.5	8.52	.12
	없다	64.7	54.1	61.8	90.9	52.5		
도서관에서 필요한 통계분석법	있다	29.4	56.8	38.2	54.5	42.5	5.77	.32
	없다	70.6	43.2	61.8	45.5	57.5		
도서관 정보서비스 측정/평가	있다	35.3	59.5	57.8	45.5	52.5	5.05	.40
	없다	64.7	40.5	42.2	54.5	47.5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있다	23.5	35.1	32.4	45.5	7.5	13.24	.02*
	없다	76.5	64.9	67.6	54.5	92.5		
아동/청소년 자료/서비스	있다	23.5	78.4	15.7	81.8	12.5	70.58	.001***
	없다	76.5	21.6	84.3	18.2	87.5		
보건/생명과학 정보원/서비스	있다		16.2	15.7	18.2	20.0	4.49	.48
	없다	100.0	83.8	84.3	81.8	80.0		
법률 정보자료/서비스	있다	5.9	21.6	24.5	18.2	27.5	7.13	.21
	없다	94.1	78.4	75.5	81.8	72.5		
경영 정보자료/서비스	있다	5.9	16.2	26.5	36.4	35.0	12.83	.02*
	없다	94.1	83.8	73.5	63.6	65.0		
정부간행물	있다	17.6	24.3	40.2	27.3	22.5	8.68	.12
	없다	82.4	75.7	59.8	72.7	77.5		

\*  $P < .05$  \*\*  $P < .01$  \*\*\*  $P < .001$

위한 DBMS의 이용은 관종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지만 전문/특수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서 요구가 높다.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요구는 관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P < .001$ ) 대학도서관(78.4%)과 전문/특수도서관에서(75%) 요구가 높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정보원과 그 탐색은 관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P < .05$ )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관종에서 요구가 높다. 문서자료의 조직과 관리는 관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다만 학교도서관에서 높은 요구(81.8%)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분석과 지역 특수서비스는 관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P < .001$ ), 공공도서관에서 요구가 높고(70.3%) 나머지 도서관에서 모두 요구가 낮다. 정보추구 및 이용행태와 정보상품 및 서비스개발과 마케팅 두 주제 모두 관종별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전문/특수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요구가 낮은 편이다. 도서관 통계분석법도 관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공공도서관과(56.8%) 학교도서관에서(54.5%) 비교적 요구가 높다.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측정과 평가는 관종별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에서 50% 이상의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은 관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P < .05$ ) 전반적으로 요구가 낮은 편이다. 분야별 정보자료원과 서비스에 관한 4가지 주제는 비교적 낮은 요구를 보이고 있다. 보건/생명과학 분야와 법률정보 분야는 관종별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자료와 서비스 그리고 경영정보 분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자는 학교도서관과(81.8%) 공공도서관에서(78.4%) 요구가 높고 후자는 학교도서관과 전문/특수도서관에서 요구가 높다. 정부간행물에 대하여도 비교적 낮은 요구가 있으며 관종별 차이가 유의하지 못하다.

#### 4. 결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고 정규교육과 현장의 갭을 메꾸고 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헌정보전문직의 계속교육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현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계속교육의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개인회원파일을 토대로 25%를 계통표집하여 총 292명에게 설문을 배부하였고 그 중 80%가 회수되었다.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직업적·개인적 변인과 계속교육 현황 및 요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자승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직자들의 계속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의 49.3% 만이 최근 3년 이내에 공식교육 참여경험이 있으며, 연평균 1회 이상 계속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의 10% 이하로 낮게 나타나 계속교육 활동이 크게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전문서적과 전문지 기사의 독서, 정기적 브라우징 등을 통하여 계속교육을 위한 개별적 노력을 분석해 본 결과, 응답자들의 전문서적 독서는 범위가 크고 개인차가 많고 단행본보다 전문지가 계속교육의 유용한 매체로 드러났으며, 브라우징은 대부분 국내 전문지에 제한되어 있다. 전문직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생애교육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보다 자발적인 학습태도가 요구된다.

셋째, 소속기관의 계속교육 정책에 대하여 응답자의 67%가 계속교육을 장려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장려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시간과 재정적 보조 모두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또한 계속교육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직속상관, 관장 등의 순서로 되어있고 직원개인의 의견은 12.7%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경영상의 문제는 계속교육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예산과 인사 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응답자의 90.5%가 계속교육에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알 수 있다. 참여 의사는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교육 정도로는 4년제 대학 이수자가 높았다. 경력별로는 21년 이상 경력자가, 관종별로는 학교도서관 근무자가 낮은 참여 의사를 보였

다.

다섯째, 교육 유형에 대하여 선호하는 계속교육 유형은 전문주제별 단기교육(31.1%)과 특정업무별 단기교육(25.5%)으로 현직자들은 심도있는 주제별 교육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조사를 보면 CD-ROM과 같은 뉴미디어(31.6%), 교수진의 출장교육(29%), 온라인교육(22.9%)의 순서로 나타나 교육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계속교육 주관기관에 대한 견해는 도서관협회(30.8%), 관련 학·협회(23.1%), 대학의 문헌정보학과(21.3%)의 순서로 나타나 학·협회나 대학의 역할에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속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제와 해당 주제요구에 대한 관종별 차이를 구명한 결과, 연구자가 제시한 16가지 주제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선택한 주제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원과 탐색(81.8%), 서지정보의 DBMS 적용(69.2%), 정보네트워크 기술(68.3%), 도서관서비스의 측정과 평가(53.4%), 정보시스템 분석과 설계(52.5%) 등 5가지이다. 요구주제에 대한 도서관종별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모두 7가지 주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주제별 교육 목표집단이 식별되었다.



## 참고문헌

- 구본영. 1994.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선방안. 문헌정보학 총론. 서울 : 구 미무역, 55-97.
- 김병주. 1985. "司書職의 發展을 위한 繼續教育." 국회도서관보 22(4): 17-27.
- 김현식 등. 1994. "도서관 사서직의 재교육에 관한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12: 131-149.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술부. 1995.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발전과 현황. 서울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미간행)
- 李振榮. 1990. "司書職을 위한 再教育管理." 도서관 45(1): 5-24.
- 정태숙. 1978. "도서관인 재교육." 국회도서관보 15(6): 7-12.
- 조호일. 1988. "사서의 계속교육에 관한 고찰." 계명연구논집 10: 91-109.
- Albritton, R. L. 1990.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 A Management Development Approach." Reference Librarian, 237-255.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ontinuing Education Subcommittee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Library Education(SCOLE). 1988. Guide lines for Quality in Continuing Education for Information, Library and Media Personnel. Chicago : ALA.
- Barron, D. 1991. "Distance Education, Rural Libraries, and Personnel Development : The Future of Public Libraries." Wilson Library Bulletin: 46-47.
- Bearman, T. C. 1993. "The Education of Archivists : Future Challenges for Schoo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 66-72.
- Berk, R. 1987. "Internationalizing Library Continuing Education." In : Internationaliz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Harvey, J. F. and Carroel, F. L. ed. New York : Greenwood Press, 125-141.
- Biggs, M. 1995. "Reflections on Continuing Education... near a Window."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2): 174-179.
- Boydston, Jeanne M. K. 1992. "Continuing Education and Staff Development Among

- Serials Catalogers." *Serials Librarian*: 17-38.
- Burgin, R. 1992. "Public Librarians and Continuing Education : A Motivational Study." *Public Library Quarterly* 12(4): 29-41.
- Chobot, Mary C. 1989. "Improving the Quality of Continuing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1): 61-67.
- Conway, P. 1993. "Effective Continuing Education for Training the Archivist."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 38-47.
- Durrance, J. C. 1986. "Library Schools and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 the de Facto Role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It." *Library Trends* 34(1): 679-698.
- Fisher, W. and Matarazzo, James M. 1993.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Special Librarians : Formal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Excellence." *Library Trends*. 42(2) : 290-303.
- Grover, Robert J. 1985.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 Education for the Learning Society : A Model Curriculum."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 33-45.
- Hegg, J. L. 1985. "Continuing Education : A Profile of the Academic Librarian Participant."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6(1): 45-63.
- Laughlin, Sara and Nissen, Karen. 1990. "The Role of Multitype Networks in Providing Continuing Education for Reference Workers." *Reference Librarian*, 179-190.
- Lewins, H., Macdougall, J. and Tseng, G. 1991. "Continuing Education and Professional Staff in United Kingdom University and Polytechnic Libraries." *British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6(1) : 27-36.
- Menou, Michel. 1996. "Introducing ADBS : The [French] Association of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Professionals."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3(1): 27-28.
- Penland, Patrick R. 1968. "Continuing

- Educatio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2. New York : Marcel Dekker, 55-62.
- Reeling, Patricia G. 1992. Education for the Library / Information Profession. London : McFarland & Co.
- Richard, Stephen. 1990. "Are We Providing the Right Kind of Training for the Profession?" Library Association Record 92(3): 207-209.
- Smith, D. 1992. "The Greening of librarianship : Toward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Ecolog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7(1): 37-53.
- Smith, D. and Burgin, R. 1991. "The Motivations of Professional and Paraprofessional Librarians for Participating in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3: 405-428.
- Stephens, Annabel K. 1992. "Continuing Education for Public Library Trustees : A Report on one State's Activities with Suggestions for Program Planners." Public Library Quarterly 12(3): 17-27.
- Stone, Elizabeth W. 1986. "The Growth of Continuing Education." Library Trends 34(3) : 489-513.
- Thompson, A. 1992. "Special Library Association Membership Needs Assessment Survey." Special Libraries 83(1) : 32-50.
- Weingand, D. E. 1989. "Wisconsin Continuing Education Profile : A Delphi Projection of Need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1) : 39-67.
- White, H. S. 1993. "Ranking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aculty and Programs : the Third in a Series of Studies Undertaken at Six-year Intervals." Library Quarterly 63(2) : 166-188.
- Woodsworth, A. and Lester J. 1991. "Education Imperatives of the Future Research Library : A Symposium."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7 (4) : 209-211.
- Wools, B. ed.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and IFLA : Past, Present, and a Vision for the Future. London : K. G. Saur.

〈부 록〉

문헌정보 전문직의 계속교육 현황과 요구에 관한 설문

I. 다음은 선생님의 직업생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되는 번호에 O표를 해주십시오.

1. 도서관 정보 분야에 종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 5년 이하                                      (2) 6 - 10년                                      (3) 11 - 15년  
 (4) 16 - 20년                                      (5) 21년 이상
2. 재직하고 계신 기관의 소재지는?  
 (1) 서울 경기 지역                                      (2) 강원 지역                                      (3) 충청 지역  
 (4) 전라 지역                                      (5) 경상 지역                                      (6) 제주 지역
3. 현재 어떤 종류의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1) 국립도서관                                      (2) 공공도서관                                      (3) 대학도서관  
 (4) 학교도서관                                      (5) 전문/특수도서관                                      (6) 기타 : \_\_\_\_\_
4. 현 직위는 무엇입니까?  
 (1) 관장/부관장                                      (2) 사서장                                      (3) 과장/계장  
 (4) 일반 사서                                      (5) 기타 : \_\_\_\_\_
5. 현 직위에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 2년 미만                                      (2) 2 - 4년                                      (3) 5 -7년  
 (4) 8 - 10년                                      (5) 11년 이상
6.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교육 이수 정도는?  
 (1) 대학원                                      (2) 4년제 대학, 학부                                      (3) 전문대학  
 (4) 사서교육원                                      (5) 기타 :

II. 다음은 선생님의 계속교육 경험 현황 그리고 견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O표를 해 주십시오.

1. 최근 3년 이내에 직업관련 교육/연수를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1-1로)                                      (2) 없다  
 (1-1) 있다면 해당 교육/연수 연도와 주관기관 및 과정명칭을 적어 주십시오.

---



---



---



---

2. 지난 한해 동안 문헌정보학 전문서적(단행본)을 몇 권정도 읽으셨습니까?
  - (1) 한 권도 안읽었다                      (2) 1 - 3권                      (3) 4 - 6권
  - (4) 7 - 9권                                  (5) 10권 이상
3. 지난 한해 동안 문헌정보학 전문지에 실린 기사를 몇 건정도 읽으셨습니까?
  - (1) 1 - 5건                                  (2) 6 - 10건                      (3) 11 - 15건
  - (4) 16 - 20 건                              (5) 20건 이상
4. 개인적으로 구독하거나 소속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전문지를 정기적으로 브라우징 하십니까?
  - (1) 예 ( 4-1로 )                              (2) 아니오
  - (4-1) 정기적으로 브라우징 하는 전문지의 종수는?  
국내전문지 (    )종      외국전문지 (    )종
5. 선생님께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서관 정보직을 위한 교육/연수를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2) 없다
6. 재직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직원의 계속교육을 장려합니까?
  - (1) 장려한다 ( 8-1로 )                      (2) 장려하지 않는다.
  - ( 8-1 ) 장려한다면 어떤 장려책이 제공됩니까? (복수 선택가능)
  - (1) 교육시간을 위해 직장을 비우는 것을 허용한다.
  - (2) 재정적 보조 (예: 학비, 참가비등)를 제공한다.
  - (3) 기타: \_\_\_\_\_
7. 재직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직원의 계속교육 참여 결정에 누가(무엇이) 영향을 미칩니까?
  - (1) 관장의 의견                              (2) 직속상관의 의견      (3) 직원개인의 의견
  - (4) 직급별 예정 교육순위                (5) 기타: \_\_\_\_\_
8. 다음 중 어떤 유형의 계속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 가능)
  - (1) 소주제별 워크샵 (2-3일 정도)
  - (2) 특정 업무별 단기교육 (1주 정도)
  - (3) 전 분야에 대한 연수과정 (3주 정도)
  - (4) 전문 주제별 단기교육 (1주 정도)
  - (5) 대학원 과정의 시간제 등록
  - (6) 상위의 학위과정
9. 기존의 교육 방식 이외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교육이 수행된다

면 어느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방송을 이용한 통신교육                      (2) CD-ROM과 같은 뉴미디어
- (3) PC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4) 교수진이 순회하는 출장교육
- (5) 독학과정

10. 계속교육을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
- (2) 도서관 협회
- (3) 도서관 (예: 국립중앙도서관 등)
- (4)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있는 대학의 학과
- (5) 기타 : \_\_\_\_\_

III. 다음의 리스트는 도서관 정보 전문직의 계속교육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를 나열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모두 선택하여 번호에 O표 하십시오. 그 밖에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제가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 주십시오.

번호	주                      제
1	정보시스템 분석과 설계
2	서지정보를 위한 DBMS의 이용
3	정보네트워크 기술
4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정보원과 그 탐색
5	문서자료의 조직과 관리
6	지역사회 분석과 지역 특수서비스
7	개인의 정보추구 및 정보이용행태
8	정보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9	도서관에서 필요한 통계분석법
10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측정과 평가
11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12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자료와 서비스
13	보건/생명과학 정보원과 서비스
14	법률 정보자료와 서비스
15	경영 정보자료와 서비스
16	정부간행물
기타	

IV.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개인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 (1) 선생님의 성별은?                      1) 남자 (    )    2) 여자 (    )
- (2) 선생님의 연령은?                      만 (    ) 세